연중 제29주일·전교 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교회의 전교 사명

오늘 우리 교회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교회의 전교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전교 사명을 남기셨고, 전교를 통해 당신의 구원사업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도들은 온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교회 즉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교의 위기

교회의 복음 선포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세상 어디에서든 이루어졌으며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교가 퍼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에 있어 전교 사업의 위기와 난관은 언제나 생겨났습니다. 교회를 향한 직접적인 박해부터 이념이나 가치관,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복음 선포의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전교의 위협 요인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어 왔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

코로나19 사태는 모여서 종교 예식을 거행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반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력한 감염 위험 때문에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미사조차 중단되거나 적어도 거리 두기 등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만 겨우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옛날 서슬 퍼런 박해시대에는 박해를 피해 숨어서라도 미사를 봉헌하였지만 지금은 숨어서도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칼보다 더 치명적인 신앙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전교는커녕 기존 신자들의 이탈조차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교회와 함께하시는 주님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며 굳건히 서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전교 사명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황인균 요셉 **신부**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주일 전례

제 1 독 서 이사 2,1–5
화 답 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제 2 독 서 로마 10,9–18
복 음 마태 28,16–20

주일 전례

천지 창조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우리의 두 번째 순례지는 첫 번째 순례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곳입니다. 둘 다 태초에 창조된 장소와 연관되어 있지만 자세히 둘러보면 다른 점이 무척 많습니다. 두 번째 순례지와 연관된 성경 본문은 창세 2,4ㄴ-3,24입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인 창세 2,4ㄴ-25은 첫 번째 창조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면 뒷부분인 3,1-24은 첫 인간이 낙원을 잃게 된 까닭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한꺼번에 둘러보기에는 조금 길어서 이번에는 앞부분인 창세 2,4ㄴ-25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둘러볼 두 번째 순례지는 아주 흥미로운 곳이기 때문에 곳곳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창조의 배경이 되는 장소부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는 매우 건조하였습니다. 땅에는 들의 덤불도 들풀 한 포기도 없었습니다. 이런 설명은 이 창조 이야기가 매우 건조한 지역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느 날 이 건조한 땅에 안개가 솟아올라 땅을 적십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흙(아다마)의 먼지로 사람(아담)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어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피조물들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창조되었다면,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제일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동쪽의 에덴동산에 첫 사람을 두시고,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 동산은 인간이 살기에 좋은 낙원이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랍니다. 이 동산은 생명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방을 적실 네 개의 강줄기가 흘러나옵니다. 이 동산은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저자가 말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따 먹는 즉시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 규정을 분명하게 첫 사람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과연 그는 이 규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한편 이 아름다운 동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느님께서는 그를 도와 동산을 돌보고 가꿀 협력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새를 빚어 그에게 데려가시자 사람은 생물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 그것으로 여자를 지어내시어 사람에게 데려가셨습니다. 그 여자를 본 사람은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라고 외치면서 그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창세 1,27). 여기에서 남자(자카르)와 여자(네케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남녀를 성적으로 구별하는 말이라면, 창세 2,23의 남자(이쉬)와 여자(잇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에덴동산에 살던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알몸이었지만 서로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더불어 평화로웠기에 그들에게는 감추어야 할 것도, 가려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사도행전 읽기 13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이코니온 선교(14,1-7)와 성녀 테클라

오늘날 이름으로 콘야라고 불리는 이코니온은 터키에서 이슬람세가 매우 강한 지역으로 치마 입은 남자 수도승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메블라나 춤, 곧 수피 댄스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여성 지도자 성녀 테클라의 고향이기도 한데, 테클라는 이곳에서 바오로의 설교를 듣고 제자가 된 여인입니다. 그녀가 바오로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 겪은 고난에 대한 영웅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바오로와 테클라 행전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행전에 바오로의 외모에 대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행전에 따르면 바오로는 매부리코에 안짱다리, 대머리에 몸은 왜소하고, 얼굴은 창백해서 마치 천사 같았다고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오랜 선교여행을 수행한 것을 보면 바오로의 열정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코니온에서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언제나처럼 유다인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하였고, 많은 유다인과 개종 그리스인들이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유다인들은 다른 그리스인들과 함께 바오로 일행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돌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아마 신성 모독과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섬긴다는 죄목을 덮어씌운 것 같습니다. 바오로 일행은 이를 눈치채고 즉시 도시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리스트라, 데르베, 그리고 그 근방으로 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유다인들이 방해할수록, 박해를 받을수록 복음이 더욱 널리 퍼져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리스트라 선교와 1차 선교여행의 마무리(14,8-28)

리스트라에 도착한 바오로는 예수님처럼 앉은뱅이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유다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 했던 것처럼, 리스트라 사람들이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들은 바르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오로를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신입니다. 대개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이나 임금을 신이라고 생각하곤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자신들이 신들이 아니며, 복음을 선포하는 하느님의 일꾼에 불과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는 동안 분위기가 즉시 반전됩니다.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유다인들이 몰려와 바오로에게 돌을 던져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죽을 고비를 넘긴 바오로는 다시 여정을 떠나 데르베에서 복음을 선포한 뒤, 자신이 거쳐간 여러 도시를 재방문하며 원로들을 뽑아 세우고 제자들의 힘을 북돋우어 줍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후 바오로는 선교 여행 출발지였던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돌아와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 특히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음을 보고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덕에 믿음의 문으로 들어선 이들입니다.

지평과 초월

내가 짓지 않았으나 짊어진 죄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20대 초반의 학생들, 특히 그리스도교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없는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일은 마치 외국어를 번역하는 일과 같다. 수십 년 차이도 아득한데 멀게는 수천 년 전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신화적 상상력과 삶의 경험이 축적된 신학을, 21세기 과학기술 문명과 정보화 사회의 생활 방식과 경험에 닿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신학이 담보하고 있는 실존적 경험의 깊이다. 얼핏 건조하고 엄격한 신학 언어의 표피 아래 녹아 있는 절망과 희망, 욕망과 증오, 두려움과 떨림, 외로움과 열망, 죄의식과 용서, 이런 원초적인 인간 경험의 서사는 시공간을 관통하며 학생들의 경험과 조율되어 그들의 삶에 신선한 파장을 불러오곤 한다. 그러므로 신학 교육은 교리로 화석화되어 있는 개념 안쪽의 역사적 배경과 사목적 고민들을 길어 올려 오늘 우리의 삶과 조율하는 작업이 늘 동반되어야 한다.

수많은 신학 개념들 중, 학생들이 예외 없이 난감함과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 중 하나가 원죄에 관한 교리다. 하긴, 학생들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자들에게도 원죄론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교리다. 우선 교리서에 나온 원죄를 살펴보자. "아담과 하와가 유혹자에게 굴복함으로써 지은 죄는 개인의 죄이지만, 그 죄가 타락한 상태로 전달될 인간 본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 죄는 인간 번식을 통하여 […] 모든 인류에게 전해질 것이다. […] 원죄는 '범한'죄가 아니라 '짊어진'죄이며 행위가 아니라 상태이다." (404항) 스스로 저지르지 않은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소리도 듣기 거북한데, 성관계와 출산으로 그 죄를 후대에 대물림한다는 가르침에 누가 쉽게 공감을 하겠는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고안한 원죄론은 서방교회에서 보편적이고도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원죄란 단어 자체는 사실 성서에 등장하지도 않고, 서방교회와 달리 그리스 교부의 영향 아래서 발전한 동방교회에는 낯선 개념이다. 서방교회 원죄 교리의 기반이 된 성서 구절은 창세기 3장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의 서간, 그중에서도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이다. 문제가 된 구절은 그리스어로 쓰여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ἐφ᾽ ᾧ πάντες ἥμαρτον)"인데, 그리스어에 능통했던 동방교회의 교부들이 이 구절을 "모든 사람이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다"고 해석했던 반면, 라틴어 번역 성서에 의존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를 지었다(in quo omnes peccaverunt)"로 해석했다. 수사학자로서 비유에 강했던 그는 아담이 하느님의 명을 거역할 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것처럼 제유적인 상상을 펼쳤던 것이다.

오역에 기반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은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숱한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죄의 유전을 성관계와 출산으로 연결한 그의 논리는 인간의 성(sexuality)에 대한 교회의 편협하고 빈약한 이해와 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에 그 연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가 원죄 교리를 고수하는 까닭은 이 교리가 성서와 교회 전통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일관성을 거스르지 않고, 실수에서 비롯되었지만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관계의 조건과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주목하는 것은 원죄로 귀착한 아담의 죄가 보여주는 죄의 보편성과 죄 속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연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죄의 본질을 교만, 즉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 행세하고 군림하려는 욕망으로 설명하는데, 현대의 신학자들은 교만이 보편적인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판단하고 좀 더 다양하고 섬세한 시각으로 죄의 본질을 바라본다. 그중에서도 전통과 현대신학적 비판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죄론에 접근하는 미국의 신학자 캐트린 태너(Kathryn Tanner)의 설명에 울림이 있다. 태너는 죄를 "인간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의 의도와 희망을 거부하는 인간의 고의적인 실패"라고 설명한다. 하느님은 당신의 본성인 사랑을 지침 없이 내어주며 인간에게 다가오시는데, 인간은 하느님을 닮아 창조된 자신의 본성, 인간됨을 거부하고, 눈을 가리고 부정하며 고립과 불행을 자처한다는 것이다. 한 인간의 죄, 한 인간의 잘못된 선택은 자기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사회를 위협한다. 인간됨을 거부하는 개인의 지극히 사소한 몸짓이 복잡한 사회관계망 속으로 들어올 때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팬데믹을 끼고 사는 즈음의 사회는 너무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만 몇 사람의 비뚤어진 시각과 선택이 정치적 욕망, 종교적 행위와 결합할 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확대되는지, 또 그의 도발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때 모두가 어떻게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지 말이다. 이 촘촘한 삶의 그물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누군가의 죄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함민복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구분하며 살 수 있게" 말로만 죄를 느끼지 말아야 할 일이다. "건성으로 느껴 죄의 날 무뎌질 때 삶은 흔들린다." (함민복, "죄" 중에서)

Zeinab Niche

그림출처: Artospective

견진성사
일시: 10월 21일(수)
장소: 함안성당
집전: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본당사목방문
일시: 10월 22일(목)
본당: 진례/ 생림선교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10월 20일(화) 10:00
장소: 교구청

교구 주보편집위원회
일시: 10월 21일(수)
장소: 교구청
문의: 미디어국 055·249·7072~3

사무장 연수
일시: 10. 27.(화) 13:00~29.(목)-진주, 거제지구
11. 3.(화) 13:00~11. 5.(목)-마산, 창원지구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준비물: 필기구, 세면도구, 개인 마스크, 개인 간식, 개인컵
문의: 사무처 055·249·7016~7
※ 코로나19로 인해 식음료 나누기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평협회장단 회의
일시: 10월 19일(월)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평협 055·249·7114

교구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다락방) 월모임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 100단"
일시: 10월 19일(월) 09:30~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식사 및 차량 제공)
문의: 회장 010·9399·5454
※ 전국 대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교구 모임으로 대체합니다.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10월 21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민화위 055·261·8201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례미사 및 월모임
일시: 10월 22일(목) 13:30
장소: 교구청

205차 ME주말 안내
일시: 11월 13일(금) 19:00~15일(주일) 17:30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11월 6일(금)까지, 전화 및 문자로 접수
(문자 발송시 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E-mail: mun760216@hanmail.net

수도회

재속프란치스코형제회 지원자 모집
성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영성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실천하고자 교황청이 인준한 회칙과 회헌으로 서약생활을 하는 공동체
대상: 만55세 이하의 세례 받은 신자
문의: 봉사자 010·5230·1420,
서기담당 010·5911·8792

기 타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주일 17:00
문의: 010·5686·1362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1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내용: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문: ①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 12월 14일(월)까지
접수: 우편 또는 전자우편
(cafl@cbck.kr)
문의: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제주성지 6곳 순환버스 운행
(제주공항 매일 출발/추자도 가능)
한국성지 167완주 모집중
11/18~21 전주·광주대교구 출발
2021. 1/25~28 부산·마산교구 출발
미카엘 여행사 064.805.9890(정상훈 미카엘)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낱병 1박스 20개
2종 세트 10개 1박스
3종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40년 전통〈팔보효소〉
PALBO FOOD 효소단식 • 해독요법
▶ 미·중국 수출 ▶ 부모님 건강 선물
▶ 간헐적단식 ▶ 면역력증강 ▶ 효소피정
▶ 지리산 산청 발효·OEM 전문·소화효소
www.palbo.co.kr ☎1600-0830

더편한요양병원
수술 후 재활, 암요양, 교통사고 입원
장기요양, 노인성질환(치매·중풍)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02·460·7533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대구가톨릭대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모집: 11. 2.(월)~13.(금)까지
월, 목 야간 수업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50% 장학금 지급(모든 학생)
문의: 053·660·5252~4
010·6563·0409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2019. 12. 1.~ 2020. 11. 28.

기억할 선종 사제

이강해(스테파노) 신부
2012년 10월 19일

기억할 선종 사제

김영식(알로이시오) 신부
2019년 10월 19일

故 김영식 알로이시오 신부 1주기 추모미사

일시: 10월 19일(월)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주례: 총대리 최봉원(야고보) 신부
강론: 서정범(요한) 신부(장평본당 주임)
참석범위: 교구청 사제단, 유가족
※ 코로나19 관계로 참석범위를 제한합니다. 신부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학교법인 성지학원 중등학교교사 임용경쟁시험 공고

2021학년도 학교법인 성지학원 중등학교 교사 정규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국어(1)·영어(2)·가정(1)·지구과학(1)·일반사회(1)
근무예정학교: 성지여중·고, 해성중·고
응시원서 및 접수: 10월 19일(월)~23일(금) 09:00~18:00, 5일간
문의: 055·240·8884

※ 구체적인 시험일정 및 방법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성지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2021학년도 살레시오성미유치원 신입 원아 모집

입학상담: 10월부터~11월까지
대상: 2015. 1. 1.~2017.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문의: 살레시오성미유치원 055·297·6104
홈페이지: www.sungmi.org

신간소개

미사 전례 독서와 묵상1

대림·성탄·연중(1-9)

모든 전례서 가운데에서 첫째 자리는 독서를 포함한 『로마 미사 경본』이 차지합니다. 이는 성찬례를 거행하는 교회의 기도를 더욱 풍성히 해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2017년 대림 시기부터, 사도좌의 추인을 받은 우리말 『로마 미사 경본』과 『미사 독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교회의는 하느님 말씀과 성찬의 더욱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고자, 『로마 미사 경본』과 『미사 독서』를 한데 엮고, 다양한 분야의 신학자들이 참여한 복음 묵상, 그리고 말씀 해설과 성인 약전을 더하여 『미사 전례 독서와 묵상』을 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 『미사 전례 독서와 묵상』으로 신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미사 전례를 더 뜻깊게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가 모든 교우과 사목자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출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출간: 2020년 9월 25일

오직 사랑만이!

고성 가르멜 여자 수도원

로사리오 성월인 10월이 되면 가르멜회에서는 성모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데레사라는 이름을 가진 두 성녀의 축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르멜회를 창립하신 예수의 성녀 데레사(아빌라의 데레사)와 15세의 어린 나이에 수녀원에 입회하여 9년 6개월의 수도 생활을 한 후, 24세에 세상을 떠나신 '작은 꽃(소화)'으로 알려진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하느님의 크신 은혜로 저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사셨던 프랑스 리지외 가르멜에 3박 4일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수녀님들의 환영을 받으며 봉쇄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복도의 흰 벽을 가득 채운 편지들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녀의 전구로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보낸 감사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성녀의 검소한 수방, 임종하신 병실, 성녀의 유해를 모신 웅장하게 우뚝 솟은 대성전을 보면서 성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에 불타는 영혼은 하는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지상에 장미꽃 비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성녀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현대인이 가장 사랑하고,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분으로 알려진 성녀의 성성에 대해 살아생전에는 아는 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녀의 거룩한 삶을 모범으로 삼는 많은 이들에게 누구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되고 계십니다. 성녀가 사셨던 그 시대의 성인들은 평범한 사람이 감히 따라가기 힘든 덕행을 실천하고, 정상이 구름에 가려진 높은 산과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큰 성인이 되고 싶은 원의를 품은 성녀가 보여주신 길은 완전히 새로운 '작은 길', '신뢰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성녀는 그 당시의 발명품인 엘리베이터를 보시고 완덕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에는 너무 작아서, 하늘까지 자신을 들어 올려주는 엘리베이터는 바로 '예수님의 팔'임을 성경의 말씀 중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다음부터 성녀는 더 이상 큰 덕행을 실천하려고 애쓰지 않고, '어린아이'로 남아 있어야 하며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한다고 깨닫게 됩니다.

성녀는 특별히 눈에 뜨이지 않는 평범한 삶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잊고, 기도와 희생으로 이 세상을 포옹하기 위해 "어머니이신 교회의 심장 안에서 사랑이 되는" 자신의 성소를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코로나19, 빈곤, 폭력 등의 많은 사건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전구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느님을 영원히 사랑할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일하기를 원하신 성녀와 함께,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묵주 기도 성월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